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대한민국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근무하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종종 여러분과 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이러한 통신문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번
통신문은 제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지휘기를 이양받은 후 첫 통신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매우 흥분됩니다. 여러분의 사령관으로
근무하게 되어 큰 영광을 느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매일과 같이 헌신하며
여러분의 조국을 대표하여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근무할 나날들이 매우 기대되며 함께 큰 성과를 이루어 봅시다.

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저는 한반도 내 여러 부대들을 방문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관찰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또한 한측
고위급 관계자분들, 유엔사 전력제공국 및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대표분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의 전문성을 치하하는 발언이 오갑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현재의 사령부 지휘중점은 우리에게 좋은 초점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휘중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우리 한미 연합전력은 갖추고 있는 강한 능력과 준비태세를
시현한 바 있으며, 철통같은 우리 한미동맹은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찬란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강력하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같이 갑시다!”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앞으로 전진해 주십시오.

정전 유지: 정전협정은 지난 63년 간 효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곳에서
근무한 많은 이들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 또한 전쟁을 성공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정전은 전쟁의 종결이 아닌 적대행위의 중단을 의미함을 기억하십시오. 즉 높은 경각심과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정전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한미동맹 변혁: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 노력하면 됩니다. 미국
주도에서 대한민국 주도로의 전환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일어날 한국내
전력통제 및 임무수행의 변화는 핵심 군사능력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기지이전 계획을 이행하여 서울 이남 두개의
기지로 전환하면서 주둔 위치와 임무수행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행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합시다.

전력 유지 및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팀 강화: 신뢰와 팀워크는 우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께서 몸소 실천하셔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및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서로를 배려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음 통신문을 올리기 전에 세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리고 동시에 노를 같은 방향으로 저어”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임무를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말로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리더와 감독관들이 모든 부하들 개개인의 가치를 인지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모든 요원들이 팀 내 본인이 맡은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팀 내 타 요원들과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사령부는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대에 올랐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민첩함과 강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면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과 같이 이 두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美 현충일이 다가오는 만큼 안전한 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현충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 앞서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표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오늘 헌신해야 합니다.

최고의 팀인 우리 한미 연합 팀에 저와 제 아내를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매일과 같이 수고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각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대장 빈센트 브룩스 “호랑이 6”